"좋은 콘텐츠가 5·18 인식 바꾼다"

33주년 5·18 문화 & 세대공감

5월 주제 정치적 외압 극심
6년 끝 제작 관객몰이 성공
역사적 사건 콘텐츠로 표현
시민들이 찾고 관심 가져야

〈6〉영화 26년 제작 최용배씨

'26년'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있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청어람 사무실에서 최용배 대표가 5·18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영화 판권 구입 후 2007년 시나리오 제작 완성. 2008년 촬영을 열흘 앞두고 KT 등 투자자 연쇄 투자 취소. 2011년 제작 재개했으나 실패. 2012년 3월 1차 크라우드 펀딩 실패. 2012년 6월 제작두레(2차 크라우드 펀딩)와 개인투자유치로 그해 7월 촬영 시작. 지난해 11월29일 개봉해 최종 관객 수 295만3092명 기록.

5월을 그린 '26년'처럼 '극적인' 영화도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와 외압으로 제작이 무산됐다가 이를 시민모금 형식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살려내더니, 급기야 300만 관객을 몰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 영화의 뒤편에는 6년이나 뚝심 있게 자리를 지킨 최용배(50) 청어람 대표가 있다.

"2008년 청와대에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을 짰는데, 여기에 '26년'이 '좌파 영화'로 분류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투자자도 그런 정부의 압박에 투자를 취소했더라고요."

의미가 남다른 주제, 비극적 현대사. 최 대표도 처음 5·18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 때는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고민 끝에 5·18을 소재로 선택하게 된 것은 '현재진행형 5·18'이라는 흥미로운 구성과 콘텐츠가 가진 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80년 5월의 주범을 단죄한다는 내용에서 '액션, 복수극'이란 장르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죠. 영화는 보는 관객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영화나 콘텐츠가 무거운 '주제'만 가지고 있다면 역사책과 다를 바가 없죠. 저는 젊은 세대들이 26년을 통해 5·18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5·18을 알리는 건강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다룬 '피아니스트','쉰들러 리스트'등은 아직도 표현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콘텐츠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책에서 공부하는 역사는 공통적이고 최소한적인 의미만을 담지만, 콘텐츠로 표현된 역사는 그만큼 다양한 시각을 담기 때문에 특별하고 오래 기억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18은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고, 학살 주범은 처벌받았고 희생자는 민주화 국가유공자가 됐죠. 그러나 국민은 이것을 100%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콘텐츠가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문답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거에요. 최소한 이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하진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광주 시민들의 5·18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자신이 5·18을 알고 있으면 전파하고, 낯설다면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등 스스로가 '콘텐츠화(化)'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26년을 비롯한 5.18 콘텐츠는 광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찾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콘텐츠가 경직돼 있어서는 관객을 흡수할 수 없다. 자유로워야 하고 소재는 새롭고 특별해야 한다"며 "한편이라도 더 건강한 5·18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서울=박정렬기자 ha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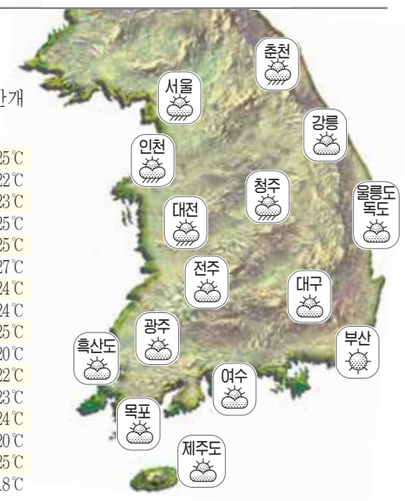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9분 해짐 19시 29분 | 달뜸 09시 30분 달짐 23시 33분

자외선 주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15/25℃
목 포	구름많음	16/22℃
여 수	구름많음	16/23℃
나 주	구름많음	12/25℃
완 도	구름많음	15/25℃
구 례	구름많음	13/27℃
강 진	구름많음	15/24℃
해 남	구름많음	15/24℃
장 흥	구름많음	15/25℃
순 천	구름많음	12/20℃
영 광	구름많음	14/22℃
진 도	구름많음	14/23℃
전 주	구름많음	16/24℃
군 산	구름많음	15/20℃
남 원	구름많음	13/25℃
흑산도	구름많음	14/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m
먼바다	남동~남	0.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경고	매우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5:14 17:08	10:31 22:24
여수	11:45 --:--	05:52 17: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날 씨						
최저/최고	14/26	15/23	16/22	15/26	15/25	14/27

조경수 '싹둑' 과태료 500만원 누구에게?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 조성 신고 않고 14그루 베어내
구청, 관리소장·입주자 대표 공석 입주민이 낼 처지

최근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경수를 베어내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소속 입주민들이 500만 원(한 세대당 3만6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적으론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당시 이곳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일을 그만둔 데다, 관련 공사를 추진했던 입주자대표 회장도 직(職)을 내놨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A아파트(138세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달 초 단지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해 놀이터(면적 340.48㎡) 축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소·그네·철봉을 철거하고 놀이터 주변에 심어진 조경수 14그루를 잘라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 측은 운동시설에 대해선 입주민들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았지만, 조경수에 대해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11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경수를 벤 입주자대표회 측에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지난 10일까지였다. 구는 24일까지 원상복구(2차 시정명령)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일을 그만두면서 구가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상 책임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지도록 돼 있다.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누구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이다.

구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뒤 전·현직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 입주민 등 관리부과 대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행사 남구 오카리나 합주 무산

"휴일 겹쳐 참여자 모집 어렵다" 사전협의 없이 취소

"휴일이라서…."

광주시 남구가 자신들이 먼저 요청한 5·18 시민참여 무대의 오카리나 공연을 사전 협의없이 취소해 18일에 진행될 기념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휴일인 석가탄신일에 토~일로 이어지는 연휴라 참여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5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 취지를 감안하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14일 "남구 시민 5180명 오카리나 행사 공연을 남구가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18일 금남로에서 있을 5·18 기념행사 자체를 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측은 그러나 돌연 "오카리나 합주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해 합주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기념사업회 측에 통보했다.

남구 관계자는 "학교 등에 참여 의사를 문의했는데 휴일이라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남구는 "시기도 촉박한데다, 준비도 덜 돼 지금은 5·18 기념행사와 별도로 24일 푸른길 공원에서 연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하늘다람쥐

담비

국립공원 무등산에 멸종위기 포유류
수달·담비·하늘다람쥐 등 다수 서식

무등산 국립공원에 멸종위기종 포유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식생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합동조사를 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4종의 멸종위기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은 광주호의 지류와 무등산 저수지에 대부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삵은 농경지에서 주로 서식 흔적이 발견됐고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는 탐방객이 자주 찾는 증심사 지구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비는 몸 크기가 60㎝에 불과하지만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고 나서 남한 지역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졌다. 주로 고라니와 멧돼지와 다래, 머루 등도 먹는 잡식성 야생동물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5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페이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